<제 33기 관세사 최종합격>

조현진

꿈이 현실이 되는 기적, 노력 없이 불가능하다.

[목차]

1. 공부를 시작하게 된 배경
2. 공부방법
3. 건강관리 등 나만의 컨디션 관리법

이번 제 33기 관세사 시험에 최종합격한 조현진입니다.

합격만을 위해 달려왔는데 이렇게 진짜 합격의 문에 들어서니 지난 수험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 갑니다. 지금의 합격의 결과를 얻기까지 제가 공부한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험생 모두가 그러듯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공부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저는 이렇게 공부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일 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Ⅰ 공부를 시작하게 된 배경

회계사인 삼촌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보는 건 어떠냐며 그 자격증으로 관세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무언가는 해보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 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도전하기는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관세사란 직업 자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처음 들어본 직업이었고 시험 과목을 보니 제가 접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과목들이었습니다. 1차 과목을 알아보는데 회계과목이 과락과목이라며 모두가 힘들어한다는 평가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 수업을 한 번 들어보고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관세사란 자격증에 도전해보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당시 지인이 세무사 준비를 하고 있어 회계 인강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을 통해 회계 인강을 무작정 들어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들은 후 계속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 다음 거의 5일정도는 여러 학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강사님이 괜찮을까 정보를 수집하면서 관세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Ⅱ. 공부방법

1차

일단 저는 모든 게 다 처음 접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기초부터 튼튼하게 다지자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1차부터 상당히 꼼꼼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 중에는 3개월 혹은 4개월만에 1차를 합격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야 암기가 되는 성격인 데다 또한 이해마저 제가 혼자 많이 생각하고 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단기간에 어떠한 성과를 내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좀 피곤한 스타일이죠.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좀 어렵게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하나하나 다 이해해야 넘어갔기 때문에 1차 공부를 오래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관세법- 수험서를 보고 또 보고 계속 봤었습니다. 단어이며 내용이며 다 생소했기 때문에 일단 이해 자체가 오래 걸렸습니다. 손으로 여러 번 쓰면서도 외워보고 말하면서도 외워보고 계속 외우려고 노력하면서 관세법과 친해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차는 일단 객관식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접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전 처음에 다 이해하려고 하고 다 외우려고 했는데 그 공부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모의고사를 보면서 깨 달았습니다. 문제는 굵직한 부분에서 답을 고르는 문항도 있지만 미묘한 문장의 차이로 답을 골라내는 문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출문제 내에서 비슷한 구조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많이 보고 다양한 학원 모의고사를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회계와 마찬가지로 과락이 나오기 쉬운 과목이라고 사전에 확인한 바가 있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부해보면 감이 가장 잘 잡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역영어 책에 있는 협약의 원문을 하나하나 다 공부했습니다. 일단 눈에 익숙해지자는 생각에 원문만을 봤습니다. 해석된 것은 보지 않고 영어만 보면서 스스로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계속 거치다 보면 문제를 접했을 때 어 이런 문장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어색한 문장들이 자연스레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무역영어 역시 기출문제 내에서 비슷하게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기본으로 다 알아야 하며 덩달아 학원 모의고사도 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내국소비세법- 남들은 전략 과목이라고 했는데 저에겐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처음엔 이해 자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과목이었습니다. 개소세, 주세도 놓치지 않고 다 공부했으며 이 역시도 하나씩 다 이해하고 외웠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느는 건 역시나 문제를 접해보면서 였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오히려 책만 볼 때보다 이해가 더 잘되고 답을 찾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목은 문제풀이가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문제풀이반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이해력도 가장 높았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 기본을 잘 다지면 모의고사에서는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겁니다.

회계학- 1차에만 필요한 과목이지만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회계는 책에 있는 말들을 전부 이해하려면 시간도 부족할뿐더러 이해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기출문제도 다 출력해서 풀었습니다. 한 번 풀었다고 끝이 아니라 1-2주 간격으로 같은 문제를 계속 풀었습니다. 특히 틀린 문제는 오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몇 주 뒤에 다시 보면 새로운 문제가 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었으며 그 문제 접근 방식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해야 숫자가 달라지거나 문제 자체가 달라져도 접근 방법이 동일하다면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

3동차로 올해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초시생 때의 공부방법은 제외하고 유예 때 공부방법과 이번 동차 때의 공부방법을 비교하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유예: 60점대 초반 // 올해: 63.5점)

기본- 심화- 문제풀이- 모의고사 반을 수강하였습니다.

기본과 심화 강의는 인터넷 강의로 수강했으며 문제풀이는 실강으로 참여했습니다.

1차 때는 꽤 이해를 많이 하고 잘한다고 생각했으나 2차 관세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완전 다른 공부방법으로 접근해야 했기에 그 사이의 과도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예때에는 일단 기본과 심화 강의를 들었으니까 어느정도는 실력이 쌓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반을 수강했는데 그 때까지도 그냥 기본이나 심화 강의처럼 수동적으로 들으며 이해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안일하게 그냥 그렇게 듣고 이해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하고 생각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해는 이해대로 당연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백지에 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쓰는 연습을 유예때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목차로 완벽하게 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유예때까지도 이해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어야 암기가 될 터인데 저는 유예때도 여전히 이해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것으로 만들어 습득하는 게 오래 걸리는 탓인지 이해가 느리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시 도전한 이번 동차에서는 확실히 제가 느끼도록 암기가 잘됐습니다.

유예 때는 분명 뭔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외운다고 해도 이해도 없이 외운 부분도 많아 상당히 암기의 휘발성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공부하였는데 이미 이해를 다 해 놓아서인지 다시 보니 확실히 이해하는 속도도 달랐고 외우는 것도 잘 외워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작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공부하는 것에 있어 재미를 느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쓰는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뭐 하나 버리는 것 없이 목차부터 다 암기 했습니다. 쓰는 연습이란 게 문제에 대해 답을 쓰는 것은 아니었고 1장이며 1장, 9장이면 9장 이렇게 한 장을 정해 놓고 그에 속하는 큰 목차부터 세부 목차까지 쓸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 목차만 쓸 수 있으면 그 안에 내용들은 충분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모자를 뿐이지 채울 내용은 많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답을 써야하는 이 시험에서는 목차를 생각할 시간은 없다고 봅니다.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목차를 쓸 수 있도록 목차 암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읽었습니다. 다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세법 공부시간은 환특법 포함하여 3시간을 잡았는데 목차 쓰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읽고- 이해- 암기 순으로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그 전에 이해했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제대로 이해하는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들게 공부했던 유예 때보다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더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예 때 힘들게 이해하던 시기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에는 꼭 붙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리는 목차 거의 없이 다 챙겼습니다. 아무리 기출이 안되고 중요하지 않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2-3줄은 쓸 수 있도록 하고 이해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관세법은 이해와 암기의 반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HS(유예: 60점대 초반 // 올해: 59점)

기본- 심화- 문제풀이- 모의고사반을 수강하였습니다.

시험 전 날까지도 가장 어려웠고 힘들게 한 과목이었습니다.

이 과목은 그 어느 과목보다 완벽하게 암기 해야하는 과목이며 규정 그래도 외워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완벽한 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분명 공부할 때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웠는데 다음날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꿈에서도 주 규정을 외우고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장 부담이 큰 과목이었습니다.

유예 때는 더욱이나 암기가 덜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해설서를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서는 거의 제쳐 두고 주 규정, 호의 용어만을 외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 것만으로도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유예 때나 올해나 마찬가지고 hs를 3시간을 잡고 공부했습니다. 올해 동차를 준비하면서는 hs는 해설서와 규정이 함께 나와 있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해설서는 외운 다기보다 눈에 계속 익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마다 계속 그냥 이해가 되든 안되는 봤습니다.

총 21부를 처음에는 6등분으로 나누어서 매일 공부했으며 마지막 하루는 그 중에서 조금 취약했던 부에 대해서 복습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시작하면서는 처음 몇 달은 6등분으로 나누어 모의고사 전 날 까지 복습없이 꽉 채워 암기하고 점점 마지막 2개월부터는 5등분하여 암기하고 모의고사 보기 전 날에는 전반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예 때 hs 시험지를 받아보고는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50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서 의아했는데 스스로 생각해본 결과 호를 묻는 문제는 다 맞혀서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준비하면서 호는 다 외웠습니다. 16부 84류, 85류는 호가 많아서 힘 들긴 했지만 그래도 다 외웠습니다. 가장 불안한 과목이었고 저와는 다르게 남들에게는 전략과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꾸준히 외우다 보니 외워 지기는 했습니다. 유예 때보다 몇 개월을 더 공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hs는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점점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시험에서는 작년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모두가 다 잘하고 기본인 통칙 문제에서 제대로 쓰지 못해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시 드는 문제를 제대로 쓰질 못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10점 문제에서는 거의 규정과 똑같이 썼습니다. 65류 문제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있는 내용까지 빠짐 없이 썼으며 그 외 문제 모두 규정과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러한 점수라도 받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Hs는 암기가 당연히 주가 되어야 하며 이해보다도 암기에 힘썼습니다. 또한 부족한만큼 시간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관세평가(유예: 40점대 후반 // 올해: 57점)

기본- 심화-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수강했습니다.

관세평가는 범위는 좁지만 그만큼 세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요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접했을 때는 가장 재미있고 좋아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가장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시생때는 50점짜리 문제와 10점짜리 1-2문제밖에 풀지 못했는데 47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예 때는 평가에 대한 공부방법에 대해서 딱히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강의 듣고 이해하기만을 반복하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자라는 식이었습니다. 뭘 더 공부해야 할지 필요한 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재 읽고 프린트물 읽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협약도 물론 공부했는데 암기만 했지 이해는 제대로 안했습니다. 물론 이해를 한 것도 있지만 안되는 부분이 있어도 끝까지 파고들지 않고 이해 안된 상태에서 암기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한 결과 작년 시험에서 허를 찔렸습니다. 분명 50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학원 모의고사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해 안된 상태로 그냥 외웠었습니다. 그러다 막상 시험 문제로 살짝 꼬아서 내니 스스로 논리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냥 통을 외운 그 내용은 전혀 쓸 모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50점 문제를 망치니 아무리 10점짜리 문제를 잘 썼다고 해도 점수는 50점도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를 공부할 때에는 무조건 이해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범위는 좁기 때문에 암기할 내용이 타 과목에 비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이해부터 했습니다. 협약집도 작년에는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만 봤었는데 올해에는 전부 보고 이해하며 암기했습니다. 확실히 이해를 하다 보니 암기하기도 쉬웠으며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접해도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시간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로 했습니다.

작년 50점 문제는 협약에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협약집을 계속해서 들고 다니면서 읽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반에서 나눠준 프린트물도 활용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핵심 내용만이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전이나 이동 중에 간편히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올해 평가 문제는 작년과는 좀 다른 스타일이라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고 평소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이라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었습니다.

평가는 이해가 가장 중요하며 자신의 논리에 대해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법이 기초가 되어있는 만큼 협약만큼이나 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역실무(유예: 40점대 초반 // 올해 70점)

기본- 심화-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수강했습니다.

무역실무는 범위가 방대하여 처음 접근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또한 대외환도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히 부담되는 과목이었습니다.

유예 때 그 많은 양에 치여 그저 이해만 주구장창 했습니다. 대외환은 거의 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역실무만으로도 벅차 대외환은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범위가 많이 때문에 당연히 외울 생각은 하지도 않았고 그냥 읽으면서 암기하고 읽고 또 읽으며 그저 계속 읽으면 그게 제 지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공부방법으로 공부를 한 결과 작년 시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뭔가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본 것 같고 기억도 나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 다른 목차랑 겹쳐 생각이 나고 정확한 답이 생각 나질 않았습니다.

올해 동차를 준비하면서 무역실무는 공부방법을 아예 바꿨습니다. 이해는 물론 하면서 관세법처럼 목차를 다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차를 외우니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역실무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쓸 내용은 생각하면 할수록 많았습니다. 하지만 목차를 외우고 있지 않으면 체계화 되지 않아 제대로 정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목차부터 외운 상태에서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독을 하며 이해하고 외웠습니다. 목차만 알면 그 세부 내용은 얼마든 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역실무 담당 세 분 강사님의 교재를 읽었습니다. 무역실무는 어떠한 정확한 답이 없고 관점에 따라 차이도 있고 쓸 수 있는 내용도 많다고 느껴 최대한 다 알고는 있어보자 생각해서 여러 강사님의 생각을 취합하여 한 곳에 정리하여 외웠습니다. 또한 모의고사를 보면서 책에서 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교재에 채워 넣어 그 새로운 내용까지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외환도 공부했습니다. 1차까지 공부하느라 강의를 들을 시간은 없어 책을 사서 그냥 독학했습니다. 대외는 관세법과 비슷하여 혼자 해도 이해가 가능했지만 외환은 솔직히 이해없이 그냥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외환은 정확한 답보다는 두루뭉실하게 쓰고 나왔습니다. 대외 역시 그래도 충분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에는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나와 정확히 못썼습니다. 그나마 무역실무에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을 작성했습니다.

그래도 무역실무 점수가 나쁘지 않았던 이유는 50점 문제를 많이 써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외환을 제외한 10점짜리 문제들은 기출 문제도 있었고 교재에 그대로 나온 문제도 있어서 다들 잘 썼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50점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공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작년 무역실무를 망치고 든 생각은 어느 하나 버리지 말고 공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페이팅에 대해 장단점이나 특징에 대한 답은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교재를 보면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강사님마다 더 추가시킨 내용도 분명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 교재에 추가적으로 다 정리 해 놓고 외웠는데 그게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더 도움이 되고 더 많은 분량의 답을 쓸 수도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50점짜리도 수출보험이었는데 이 부분은 단기 종류 중장기 종류에 대해 다 알지는 못했지만 쓸 수 있을 정도로 평소 정리는 해와서 그나마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팩터링과 포페이팅에 관해서는 한 강사님 책이 아닌 여러 강사님 책에서 취합한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하여 많은 분량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이 점수 받는 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역실무는 이해가 가장 중요하지만 목차 같은 틀을 외우지 않으면 암기할 때 정리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뿐만 아니라 암기도 중요한 과목입니다.

Ⅲ 자기관리

작년 11월부터 올해 2차 시험 보기 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불합격하고 나서는 올해까지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장 먼저 체력이 받쳐 줘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체력에 대해서는 하루 30분 이상은 꼭 운동했습니다. 체력을 위해서도 있었지만 살이 찌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찌지는 말자라는 생각으로 운동에 있어서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1차 합격 후 2차 시험 전까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30분정도 달리기를 했습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공부시간은 보통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했지만 1차 시험 이후 4월 중순부터는 아침 6시 반에 기상하여 아침공부 1시간 정도 하고 아침밥을 먹은 후 독서실에 8시 가 8시 반에는 무조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 옷 갈아 입고 바로 달리기를 했으며 취침은 11시 반 이전에 꼭 했습니다. 저는 낮잠은 안 잤으며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또한 직전에 운동을 한 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저는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잠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금방 잠들고 잠들면 6시 반까지 한 번을 깨지 않고 일어났고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기상했습니다.

감정 기복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장기간 공부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내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많이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단조로운 생활 속에 웃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웃으려고 노력하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 공부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행동은 최대한 절제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대해서는 솔직히 딱히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별로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고 또한 제가 티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의고사 본 당일은 그냥 공부 안하고 오락프로 보면서 아무 생각없이 웃고 즐겼습니다. 그러면 또 일주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합격하기까지의 저의 생활 등을 적어보았습니다.

올해 3동차를 준비하면서 1-2월 모의고사는 관단기에서 봤습니다. 그러다 1차 시험 준비로 3월은 쉬고 4월부터는 집에 내려가서 공부하느라 마지막까지 모의고사 보러 가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프린트로 모의고사를 받아보아 공부했습니다. 초반에 모의고사를 볼 때 1등도 해본 적이 있어서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다하면 절실함이 생기게 되고 그 절실함을 바탕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 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